

# 다국적기업의 높은 벽을 허물다!

(주)오스람코리아, 첫 현지인 사장에 오른 최성순 신임회장



(주)오스람코리아  
최성순 사장

연말 인사철을 앞두고 술렁이기는 독일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독일계 다국적기업 오스람사의 임원인사에서 이번이 일어났다. 전세계 140여 개국 지사의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오스람 독일본사는 연말 임원 인사에 처음으로 현지인 사장을 선임했던 것. 1906년 오스람 창사 이래 100년 동안 단 한번도 없던 일이다.

오스람 본사는 지난 4일, 한국 직접 투자법인 (주)오스람코리아의 신임 사장으로 최성순현부사장(60)을 승진시켰다. 신임 최성순사장은 절전형 전구식 형광등시장의 불모지였던 국내시장을 개척하여 오스람코리아의 매출을 크게 신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사장으로 선임됐다.

최 사장은 지난 87년 오스람 한국연락사무소 창립 멤버로 출발, 당시 일반 형광등과 백열등에 비해 전기를 덜 쓰고 수명이 훨씬 긴 에너지절약형 제품인 '오스람 절전형 전구식 형광등(모델명, DULUX EL)'으로 시장의 돌풍을 일으키며 단숨에 히트상품으로 떠올랐고 기존 전구의 세대교체를 가져왔다.

오스람 한국연락사무소 샐러리맨으로 시작해 딱 20년 되는 해에 (주)오스람코리아의 수장이 된 최성순 사장. 이는 독일기업의 특성상 능력에 대해서 확실히 보장해주는 점과 장기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점 모두를 만족시킨 최성순사장의 독심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오스람 코리아 임직원들의 사기는 물론 오스람 전세계 지사에서도 첫 사례를 남겨 한국인의 위상까지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 국내조명시장 No.1, (주)오스람코리아

1987년 한국에 진출한 (주)오스람코리아는 한국 직접 투자법인으로 현재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에 위치한 1,2공장 및 본사에 약 230명, 서울과 부산, 대구 영업부에 약 40명 등 총 27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한국시장 진출 이후 19년 동안 지속되어 온 투자, 고용증대, 기술이전 등을 통하여 국내 조명시장의 발전과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절약에 기여하고 있다.

(주)오스람코리아는 05/06 회계연도 매출액 950억 원으로, 일반 조명부문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고 있다. 국내조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컴팩트 형광등 및 전구식 형광등(DULUX S, D, T, L, EL)의 주요 공급업체이다. 국내에서 취급하는 주요 생산 및 판매 품목은 형광램프와 할로겐 램프, 방전램프를 포함한 일반 조명용 램프, 사진광학용 램프, 자동차램프, 반도체 생산용 램프, 등기구 등 1,200여종에 이른다.

(주)오스람코리아는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다양한 종류의 제품, 사후 고객 서비스,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고객 만족주의를 지향하여 국내 조명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 삼성 해외공장 보다 낫다?

### 국내 생산 제품을 해외로 역수출하는 효자기업 (주)오스람 코리아

(주)오스람코리아는 외국계기업이지만 지난 87년 국내 진출 이후부터 꾸준한 국내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해외로 역수출하는 효자기업이 됐다. 관련 업체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 동남아 등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외국에서 조명기기를 직수입하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 특히 오스람코리아는 일반형광램프와 컴팩트 형광램프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다. 컴팩트 형광램프를 국내에서 생산해 독일 등 유럽에 연간 1백억원 이상 수출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76억5000만원을 들여 U자형 형광등(모델명, DULUX L) 생산설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공격적인 투자확대에 나섰다. 이 설비는 당초 오스람 이탈리아가 독일 본사에 요청해 유럽 현지에 설치될 뻔 했으나, 국내법인의 끈질긴 요청과 설득으로 한국 유치에 성공한 값진 성과다. 이로 인해 생산품목도 현재 18~55W에서 18~80W로 늘어났으며 해외수출 물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 따뜻하고 소중한 빛 '오스람'

###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

최성순 신입사장은 "기업은 지역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는 외국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경기도 안산에 뿌리를 정착한 (주)오스람코리아는 2001년부터 해마다 '사랑의 빛 나누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절전형 전구식 형광램프(DULUX EL램프) 한 개를 판매할 때마다 1백원씩을 기금으로 적립해 경기지역의 생계가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이나 독거노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같은 현지화 전략은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이미지로 다가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켰으며 기업의 경영활동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 '라이팅 트레이닝 센터(Lighting Training Center)' 일반인 대상 월 2회 견학 프로그램 운영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광에서부터 오스람의 최첨단 과학 조명에 이르기까지 빛의 모델하우스 역할을 하는 '라이팅 트레이닝 센터(Lighting Training Center)'. 경기 안산 제 2공장 내에 위치한 '라이팅 트레이닝 센터'는 오스람의 다채로운 빛의 세상과 기업 문화를 알리고, 고객들에게 새로운 조명 시스템과 기술을 선보이고자 설립되었다. 이 곳에서는 월 2회 정도 조명관련업체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라이팅 트레이닝 센터(Lighting Training Center)'는 조명에 대한 교육은 물론 선진 정보를 교환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아 최근 방문객이 2500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 세계 최대 조명업체 오스람, 연매출 43억 유로

1906년 설립 이후부터 한 세기 동안 세상을 밝혀 온 오스람은 전세계 조명 산업을 이끌고 있는 조명 전문 회사로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전 세계 140여 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오스람은 현재 19개국의 49개 공장에서 모두 3만 8천명이 몸담고 있는 다국적기업으로 Siemens그룹의 자회사이기도 하다. 지난해 기록한 매출은 43억 유로(약 5조원)에 달한다. 매출액 대비5%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전체 매출액의 40% 정도를 신제품으로 거둬들이고 있다. 오스람은 그 동안 자동차용 전조등, 실내외용 광원, 특수램프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최근 들어서는 차세대 조명인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